

---

# 2022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

근거 :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(2019~2023)

---

2022. 3.



농림축산식품부

식량산업과

# 순 서

I. 계획의 수립 배경 .....	1
II. 추진실적 및 보완 필요사항 .....	2
III.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 .....	5
IV. 2022년 과제별 추진계획 .....	6
V. 추진 일정 .....	10
[참고]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요약 .....	11

## 1 수립 배경

-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」 수립 (‘19.6월)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필요

- (법적근거)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<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>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쌀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\*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HMR, 글루텐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

\*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(kg) : (‘90) 119.6 → (‘21) 56.9

- 반면,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, 신시장 창출 등의 혁신성장 동력 부족
-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·인력 양성·투자 확대 등 산업혁신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유망 품목 발굴, 유통채널 확충 등 쌀 가공식품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쌀 소비 활성화 필요

## 2 추진 경과

- (‘11.11월) 쌀가공산업법 제정(‘12.5월 시행)
- (‘14.10월) 제1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
\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14~‘18)
- (‘19.6월) 제2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
\*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‘19~‘21)

## 1 2021년 추진실적

## [미래 유망분야 발굴 · 지원]

- '규제 개선 모니터링반' 운영을 통해 쌀가공업체 애로사항 해소
  - 「떡국떡·떡볶이떡 제조업」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\*을 지원하여 떡류 제조업체,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   - \*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60호(지정기간 : '21.9.16. ~ '26.9.15.)
- 쌀가루 활용에 있어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쌀가루 KS 표준 개정
  - 가공품 제조 용도별로 분류하던 기준('17)을 쌀가루 원료의 품질 특성(건식, 습식)에 따라 구분하도록 개정\*('21)하여 범용성 확보
    - \* (기존) 떡류용, 면류용, 제빵용·제과용 쌀가루 → (변경) 건식, 습식 쌀가루
-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쌀 가공식품(떡류, 전통주 등) 수출액 증가
  - 미국·호주·대만은 가공밥, 일본은 떡류·전통주(과실 막걸리 등), 신남방(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)은 떡류를 중심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\*을 견인
    - \* 쌀 가공식품 수출액 : ('20) 138,049천\$ → ('21) 163,061 (전년 比 18.1%↑)  
떡류(66백만\$, 전년 比 22%↑), 가공밥(57백만\$, 25%↑), 전통주(17백만\$, 27%↑)

## [산업 혁신기반 강화]

- 가공용 쌀 특별공급, 품질관리 등을 통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
  - 쌀가공업체 수요 물량, 정부 재고 여건 등을 반영하여 특별공급을 확대\*하되, 국내산 공급 물량 최소화(국내산 50 + 추가 23, 수입산 246)
    - \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18) 260천톤 → ('19) 300 → ('20) 317 → ('21) 319
  - 품질관리센터 운영('20~)으로 가공용 쌀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, 통합정보시스템\* 확대 구축을 통해 정부양곡 관리 효율성 제고
    - \*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, 정부양곡 관련 자료 분류 및 분석, 최적화 관리법 추천 등

- 시설·경영개선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**쌀가공업체 경쟁력 제고**
  - 쌀가공업체에 시설·개보수, 운영·수매자금을 융자 지원(연 400억원)하고,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('20. 70억원 → '21. 100억원)
  - HACCP 등 식품 위생 안전(7개소), 품질 개선 분야(4개소) **컨설팅 지원**
  -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(이론, 실습)과 원가관리·재무관리 등 **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**을 추진하여 전문인력 양성(246명)
  - 쌀가공산업 조사 모집단 세분화\*, 특수분류체계 재정립\*\* 등 정확한 산업 통계를 생성·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
    - \* 모집단 세분화 : 식품제도가공업(일반, 쌀가루), 즉석판매제도가공업(떡방앗간)
    - \*\* (변경 전) 11개 소분류, 72개 세분류 → (변경 후) 14개 소분류, 33개 세분류
  
- 가공용 쌀 품종·가공 소재화 기술 개발 및 원료곡 단지 조성 확대
  - 원가절감(초다수성), 유아·실버푸드용 특수미 품종(소재) 2종 개발\*, 초다수성 품종의 전통 식품 가공적성 구명 등 **소재 다양화\*\***
    - \* 초홍(초다수성 적미, 복합내병성, 766kg/10a), 밀양359호(찰벼, 칼슘 고함유, 376kg/10a)
    - \*\* 미르찰(①유과 : 팽윤력, 수분 결합력 등 우수, ②막걸리 : 현미 이용률이 높음)
  - 고아밀로스 '도담쌀' 이용 확대를 위한 **가공 소재화 기술 3건 개발\***
    - \* 로커스트콩검 첨가 '도담쌀' 현미밥, 토핑용 발아현미 등 특허출원 완료
  - 기술이전 업체 등 산업체와 연계한 **가공용 원료곡 생산단지 확대\***, **가루용 쌀(가루미2) 생산-가공 연계 협의체 확대 운영\*\***
    - \* 원료곡 생산단지 : ('19) 1,113ha → ('20) 1,651 → ('21) 2,000
    - \*\* 참여 가공업체 수 : ('20) 15개 → ('21) 18 / 재배면적 : ('20) 21ha → ('21) 25

## [수요기반 확대]

- 사업대상별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**쌀 중심 식습관 형성에 기여**
  - **어린이 대상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관심 유도를 위하여 '쌀 맛나는 학교\*'('13~)' 사업과 식량정보센터\*\***(키자니아, '20~) 운영
    - \* 쌀 맛나는 학교 : 103개소 39천명(쌀 체험키트 3종 제작 등 비대면 방식 강화)
    - \*\* 체험 인원수 : ('20) 11,211명 → ('21) 18,687명 (전년 비 66.7% ↑)

- **대학생 대상 '천원의 아침밥(17~)'** 사업을 학교 주변 카페·식당 등과 연계 운영('21년 26개교, 34만명)하여 **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\***에 기여  
\* (만족도 조사, '21) 아침밥의 중요성 인식 : 90.1%, 아침밥 섭취 의향 : 89.7%

□ **쌀 가공식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수요기반 확대**

- **산업대전 개최(7.27.~30.), 품평회(TOP10) 운영, 수출마케팅 지원**을 통해 국내·외 바이어를 유치하고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

\* 산업대전 : 상담매칭 492건, 13,128천\$ / 품평회 : 판매전 매출 181백만원 (전년 비 10배↑)

□ **매체를 활용한 쌀·쌀 가공식품 소비 촉진 홍보로 소비자 관심도 제고**

- **쌀에 대한 품종정보, 슬로건(쌀이 옳(All)-다!) 등 신규 콘텐츠 발굴** 및 방송·신문 홍보를 통해 **쌀·쌀 가공식품 호감도 증가**에 기여

\* 쌀·쌀 가공식품 호감도 : ('19) 70.0% → ('20) 74.4 → ('21) 75.2 (전년 비 0.8%p↑)

## 2 보완 필요사항

□ 유사 품목 간 별도 수출협의회 운영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·외 바이어의 산업대전 참여 어려움으로 쌀·쌀 가공식품 수출 확장에 한계

⇒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 쌀 가공식품 전문 바이어 매칭을 통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추진

□ 업체별 원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, 원료 중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\* 쌀가공산업 성장에 한계

\* '21년 가공용 쌀 총소비량(주정용 소비량 제외) 중 정부양곡 소비량 : 68.3%

⇒ 쌀 가공업체 대상 현황조사를 통해 원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, 민간 가공용 쌀 사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군 발굴·육성

□ 실질적인 쌀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주제가 약하고, 판매전 등 단발성 행사로는 지속 가능한 쌀 소비기반 구축에 한계

⇒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쌀 품종(식미), 영양학적 가치, 맛있는 밥 짓는 방법 등 홍보 주제를 구체화하고, '맛'을 강조한 집중 홍보 추진

목표

◇ 쌀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

- 매출액 : ('18) 5.3조원 → ('23) 7.0 (연 5.7% ↑)
- 쌀 소비량(주정용 제외) : ('18) 568천톤 → ('23) 630 (연 2.1% ↑)
- 수출규모 : ('18) 89백만\$ → ('23) 170 (연 13.8% ↑)
- 신규 일자리 창출 : ('18) 724명 → ('23) 3,865 (누적)

세부  
추진  
과제

1 미래 유망분야  
발굴 지원

-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
-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
-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 집중 지원

2 산업 혁신기반  
강화

- 원료의 안정적 공급
  - (구곡)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
  - (신곡) 가공용 쌀 재배단지 관리 체계화
-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
- R&D 및 전문인력 육성 등
- 정확한 통계 및 정보 제공

3 수요기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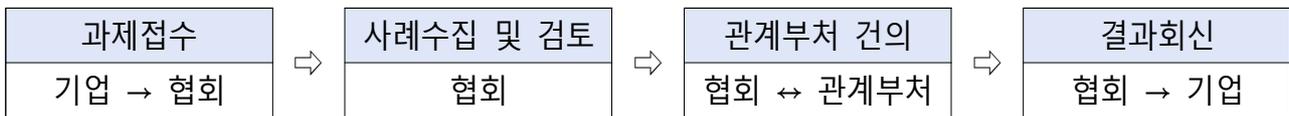
- 군·학교 급식 등 공공수요 확대
- 유통채널 확충 및 소비 홍보

## 1 미래 유망분야 발굴·지원

## □ 규제·제도 개선 모니터링 반 운영(쌀가공식품협회)

- 협회 홈페이지 및 「가공용 쌀 수급관리시스템」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, 회원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적극 파악
-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에 있어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규제·제도 개선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결과를 관련 기업에 회신

<규제·제도 개선 처리 절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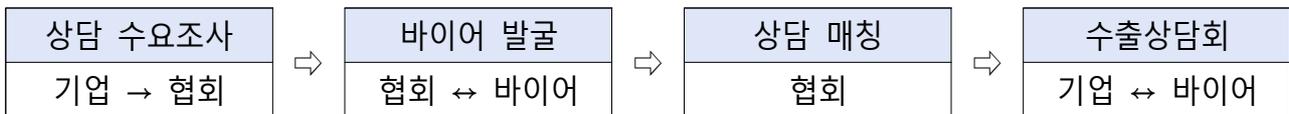


## □ 쌀 가공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(쌀가공식품협회)

- 국내·외 식품 전문 바이어 DB(12,257명)를 활용하여 쌀가공업체와 바이어를 매칭하고, 온라인 화상회의\*를 통한 수출상담회 추진(3회)

\* 상담 서비스(상담공간, 통역지원, 사무지원 등)를 제공하고 상담 집계 및 사후관리

<수출상담회 추진 절차>



## □ 수출 주요 국가별 특화전략 수립·이행(aT)

- (미국) 쌀 가공식품 중 가정간편식(HMR) 유망상품 발굴\* 및 홍보 강화를 통해 K-Food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

\* 복잡한 조리법, 재료 구매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석 섭취 가능한 제품 발굴

- (일본) 막걸리·떡볶이 등 수도권에서 수요가 검증된 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역별 강소 유통업체 신규입점을 지원하여 판매채널 강화

- (중국) '티몰 한국식품 국가관'을 K-Food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여, 연계 유통업체 입점 지원하고, 세대별 맞춤형 체험 마케팅\* 추진  
\* (영유아) 조기교육센터 연계 쌀과자 체험, (주부) 유통매장 VIP 회원 대상 쿠킹클래스
- (신남방)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편의점(GS25, CU), 유력 배달 플랫폼 (그랩, 푸디 등)과 연계하여 쌀과자·떡볶이 등 주요 품목의 유통망 확대
- (다변화) 현지 식문화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쌀 가공식품을 발굴하고, 신규 거래처 발굴과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지속 추진  
\* (유럽) 한식당 확산 및 발효식품 선호 트렌드를 활용하여 막걸리 마케팅 신규 추진

#### □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협의회 개편(aT)

- 월별 국가별·품목별 수출동향 파악 및 관련 업계 수출정보 제공  
\* KATI(수출입통계시스템) 및 TRASS(한국무역통계진흥원) 시스템 활용
- 쌀 가공식품 공동브랜드(KORECIPE, '21)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 홍보 및 협의회 통합 운영\*으로 마케팅 효율성 제고  
\* 쌀 수출협의회('09~), 쌀 가공식품 수출협의회('20~) 통합 및 협업 마케팅 추진

## 2 산업 혁신기반 강화

#### □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 공급(식량정책과)

- 정부 재고 여건에 따라 국내산은 전년 공급 물량(50천톤, 계획)을 유지하고, 수입산은 전년 대비 감량('21. 310천톤(계획) → '22. 270)하여 공급  
\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19) 300천톤 → ('20) 317 → ('21) 319 → ('22) 320
- 국내산에 한정하여 가공용 쌀을 원료곡(벼) 형태로 공급하되, 수탁기관이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위탁 도정하여 가공업체에 쌀 형태로 공급  
\* (기존) 수탁기관에 쌀 형태로 공급 → (변경) 수탁기관에 원료곡(벼) 형태로 공급
- '가공용 쌀 수급 관리시스템\*'을 통해 매월 수급 현황 파악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된 쌀에 대한 부정 유통 여부 점검  
\*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, 제품생산 현황, 판매처 및 판매량 등 입력·관리

□ 시설·개보수 및 운영·수매자금 지원 지속(식량산업과, 식량정책과)

- 쌀 가공, 도정·보관업체에 용자 지원\*하되,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**운전자금의 대출 고정금리 인하(2.5→1.5%(△1.0%p)) 기간을 연장\*\***

\* 연간 500억원(쌀가공업체 400억원, 정부관리양곡 도정·보관업체 100억원)

\*\* '22.1.1.~12.31.까지 금리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, 해당 기간 중 신규 실행되는 자금은 대출 시점부터 12.31.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
<사업대상자 선정 일정>



□ 쌀가공업체 컨설팅 통합 지원(aT)

-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 식품 제조·가공 업체의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지원\*을 통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기반 구축

\* 컨설팅 지원 분야 : [위생안전] HACCP, GMP지정 획득, 식품안전시스템 구축, [품질개선] 공정개선, 상품 품질개선, 브랜드·포장디자인, 품질인증 등 신규분야 추가 지원

- 컨설팅 분야 확대로 성장단계별 다양한 컨설팅\* 추진

\* 사전진단 → 단기 역량 제고(단순 문제 해결) → 심층 컨설팅(심화)

□ 특수미 품종·소재 개발 및 원료곡 단지 조성 확대(농진청)

- 밀양355호(장립형 향미, 712kg/10a), 밀양365호(흑찰벼, 568kg/10a) 등 원가절감과 기능성 강화를 위한 특수미 품종 지속 개발

- 가정간편식 용도별 다양한 육종 소재와 중간 모본을 개발하고, 직접 가열, 전자레인지 등 2차 취반 특성에 최적의 소재 탐색

- 지역 특화 및 산업체와 연계한 가공 전용품종 생산단지\*를 확대하고, **가루용 쌀(가루미2) 생산-가공 협의체 지속 운영('21. 25ha → '22. 30ha)**

\* 산업체 연계/지역 특화 : 한아름찰(CJ브리딩, 1,000ha), 진도흑메·진흑찰(진도군 500ha) 등 원료곡 생산단지 : ('19) 1,113ha → ('20) 1,651 → ('21) 2,000 → **('22) 2,300**

□ **기능성 소재 등 혁신적 신수요 창출**(농진청)

- 저항전분 함유 '도담쌀'의 가공 제품화 지원을 위한 **영양·기능성 검정** (메디컬 푸드 적합성 등)과 안정 생산을 위한 **현장 실증** 추진
- 수출용 쌀 선도유지 기술, 벼 저장조건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구명 등 **원료곡 품질특성 검정 및 기준 설정**에 관한 연구 추진

□ **쌀 가공기술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마케팅 확대**(실용화재단)

- 기술소개 및 사업화 성과 자료집을 **작성·배포**(5건)하고, 국유특허·지자체·민간특허 등 맞춤형 **기술설명회\*** 운영(8회)

\* 기술설명자료 온라인 상시 노출, 대면/비대면 1:1 상담 진행

□ **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**(쌀가공식품협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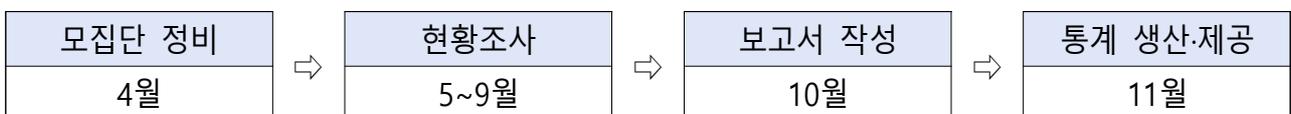
- 원가관리 계산 실무, 떡 제조기능사(이론·실습) 교육과정은 유지하고, 온라인 마케팅, HACCP\* 등 **소상공인 맞춤형 교육**을 신설하여 추진

\* 교육내용 : HACCP 개요, 법적요건 해설, HACCP 관리, 선행요건 프로그램 등

□ **쌀가공산업 현황조사 추진**(쌀가공식품협회)

- 시계열 통계 확보를 통해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, 조사 데이터 시스템 연계, 통계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등 **통계 생산 구체화**

<현황조사 일정>



**3 수요기반 확대**

□ **세대별 맞춤형 식습관 교육으로 쌀소비 문화 형성**(농정원)

- 잠재 소비층인 어린이 대상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하여 **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요리 만들기 체험** 진행\*

\* 잠실 롯데월드 '키자니아' 내 전시장과 체험장으로 구성된 식량정보센터 운영

- 초등학생 대상 월별 필수교육 주제\*를 중심으로 ‘쌀 요리 실습’ 등 체험을 활용한 쌀 중심 식습관 교육 추진
  - \* 교육 주제 예시 : 과학(벼 기르기), 사회(지역 쌀 탐구), 환경(저탄소 재배) 등
-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학교·일반식당 운영과 ‘도시락 포장’을 병행하여 아침밥을 제공하고, 대학생 활용 홍보 추진
-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으로 소비시장 확대(쌀가공식품협회)
  - 쇼핑몰과 연계한 MD 평가 등 판매 실적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쌀 가공식품 대표 제품(TOP10)을 선정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추진
  - ‘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’(킨텍스)과 연계 개최하여 국내·외 바이어를 유치하고, 온라인전시관을 활용하여 제품 정보를 O2O 홍보
-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(농정원)
  - ‘맛’을 주제로 쌀 품종과 맞춤형 요리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·홍보하고, 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쌀 요리법 교육 추진
  - 백설기데이, 쌀의 날, 가래떡데이 등 쌀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관계 단체에서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

## V

### 추진 일정

- 2022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 알림(3월)
- 2022년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(3월~)
- 추진 주체별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제출(~12월)
- 추진실적 분석 및 보완을 통해 2023년 시행계획(안) 마련('23.1월)

**1. 수립 배경**

- 쌀 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\*하고 있는 쌀 소비를 **활성화** 하는 동시에 HMR, 글루텐 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
  - \* 1인당 연간 밥쌀용 쌀 소비(kg) : ('88) 122.2 → ('18) 61.0
- 그간 법률제정('11), 1차 쌀가공산업 육성계획('14~'18) 수립·시행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규모가 **외형적으로 크게 성장**\*
  - \* ('13→'17) 매출액 4.1조원 → 4.9, 쌀 소비량 471천톤 → 492, 수출액 56백만불 → 72
- 반면,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 개발, 신시장 창출 등의 **혁신성장 동력 부족**
  - \* 「중소기업법」 상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미만 업체 비중이 99.7%
- 쌀가공산업의 **규모화·전문화**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, R&D 및 재정·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

**2. 목표 및 추진방향**

**① [목표] 쌀 가공산업의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**

구분	('13)	'18	'23	비고('18→'23)
■ 매출액(조원)	(4.1)	5.3	7.0	연 5.7% ↑
■ 쌀 소비량(천톤)	(471)	568	630~670	연 2.1~3.4% ↑
■ 수출규모(백만불)	(56)	89	170	연 13.8% ↑
■ 신규 일자리(명)	(0)	724	3,865	연 773명 ↑

\* 단, 쌀 소비량 중 주정용은 제외

**② [추진방향] 산업 내실화를 위해 산업혁신 기반 강화 및 소비처 확대**

-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·인력 양성·투자 확대 등 **산업혁신 기반 강화**
- 유망 품목 발굴, 소비 창출, 수출 등을 통해 쌀 가공제품의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

### 3. 주요 추진과제

#### ① 미래 유망분야 발굴·지원 ⇨ HMR·쌀가루 집중 육성 및 수출지원

- (유망분야 육성) HMR 등 유망분야에 대한 R&D, 업체 시설 지원 확대('18 : 한도 50억원 → '23 : 100), 시장동향 제공(연 1회, 정기보고서)
  - 비식용 분야\* 특별 공급('20)을 통해 혁신적 신수요 창출 지원
    - \* 쌀 빨대(세계 플라스틱 시장규모 431조원), 라이스클레이(슬라임 대체) 등
  - '규제신고센터' 운영(신규, '19~)을 통해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
- (쌀가루) 대체재(밀가루)와 가격 경쟁이 가능한 건식 쌀가루 특별 공급('20), KS 규격 제품 생산을 촉진\*하여 산업 기반 확대
  - \* KS 기준 강화(전분손상도 축소 등), 쌀가루 등급제('22) 시행 등
- (수출) 미국·유럽은 글루텐프리 인증제 도입('19~), 동남아는 한류스타 연계 홍보 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
  - 수출 집중 품목(쌀과자, 떡류)의 수출 과정상 애로(장기 상온 유통 등)를 해결할 수 있도록 '수출연구사업단' 지원(과기과 협조, '20~)

#### ② 산업혁신 기반 강화 : 원료 공급체계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- (원료 공급)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(연 2.1% ↑)하되, 정부양곡 의존도는 낮추고('18 : 45.8% → '23 : 38.8), 민간조달의 효율성 제고
  - (정부양곡) 중장기 수급계획을 제시(공급량 예측 가능성 제고)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,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양곡 도정평가제 도입('20)
  - (민간조달) 생산-유통-가공 계열화(들녘경영체·RPC 연계 등), 민간 가공용 재배단지의 체계적 관리·육성('19 : 35개 → '23 : 56) 추진

- (시설·경영개선) 설비투자에 대한 **융자 지원**(연 400억원)과 병행하여, 경영 노하우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**컨설팅 지원**(연 80건)
  - 쌀 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(연 200명)을 위한 **교육프로그램 운영**('19, 신규)
- (R&D) 농진청은 KS 고도화 등 **기반기술 개발\***에 집중하고, 민간 기업은 직접 제품 품질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**R&D 바우처 지원**(연 19억원)
  - \* 제품 맞춤형 전용 품종 개발 5건, 쌀가루 KS 범위 확대(건식 추가, 등급제 등)
- (인증제) 쌀 가공기업 **인증제 도입**('21~)을 통해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정책의 기반 마련
- (통계 제공) 기업의 정보 수요를 반영한 '**쌀 가공제품 통계 정보 지도**' 구축('23, aT 또는 관련 협회)

### ③ **수요기반 확대** ⇨ **학교·군대 등 공공 급식 수요 확대, 홍보 강화**

- (공공수요) 미래 세대가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쌀가공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
  - (학교) **쌀 가공식품 급식**을 지속 **추진**하고,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교육도 병행 추진(초등학생 대상, 연 13만명 내외)
  - (군대) 군 급식 내 쌀 가공식품의 종류를 확대('18 : 7종→'23 : 9)하고, 쌀 가공제품의 **배급 횟수** 등 증대
- (홍보강화) 쌀 가공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바이어 대상 산업대전 개최, 우수 제품 유통채널 입점 등 **국내외 판로 확충 지원**
  - 쌀·쌀 가공제품에 대한 영상 공모전, 라디오 사연 코너 등 **참여형 캠페인 운영**을 통해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